

보도자료

2011년 12월 26일(월)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김정원 과장(☎750-2450)
뉴미디어정책과 권희수 사무관(☎750-2451) hskwon@kcc.go.kr

방통위, 2012-2013년도 케이블TV 콘텐츠 대가 지급기준 결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2월 26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향후 2년 동안 적용할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은 SO별 디지털전환율에 따라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비율을 25%에서 28%까지 확대하고, VOD 확대에 따른 기본 채널 지급몫 감소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과 2013년 각각 전년도 기본 채널 지급분에서 최소 5%와 2.5%씩 추가 지급하게 된다.

유료방송의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해 2008년부터 SO의 연간 수신료 수익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SO에게 재허가 조건을 부과한 이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 PP의 콘텐츠 투자와 시청점유율 증가를 견인해왔다.

한편, 디지털 전환에 따른 VOD 이용 확대 등으로 기본채널에게 지급 되는 사용료가 감소하기 시작하자 이러한 시장환경 변화와 25% 기준을 마련한 당초 취지를 고려하여 새로운 지급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금번 지급기준은 방통위가 마련한 개선안에 대해 디지털 전환 투자와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지급 부담 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SO-PP간 합의로 마련한 개선안을 적용기로 한 것이다.

[참고]

2012-2013년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 세부 기준

(지급 비율) SO별 디지털 전환율에 따라 25~28% 이상으로 구분하여 확대

(지급 대상) 기존과 동일(유료채널과 VOD 모두 포함)

(지급 방식) VOD 확대 등에 따른 기본채널 지급분 감소를 고려, 기본채널 지급분을 '12년은 전년대비 5% 이상(단, 유료채널·유료VOD를 제외한 '11년도 PP지급분이 25%를 초과하는 SO는 제외), '13년은 전년대비 2.5% 이상 확대

○ 디지털 전환율별 지급비율

디지털 전환율	10%미만	10%이상 ~ 30%미만	30%이상 ~50%미만	50%이상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비율	25%이상	26%이상	27%이상	28%이상

○ 지급기준의 특징

- 지급비율을 디지털 전환율과 연동시켜 상향하되, 디지털 전환 실적이 높은 SO의 부담을 일부 완화
-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온 VOD 확대 등에 따른 기본채널 지급 규모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채널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5%, 2.5%)의 지급규모 확대를 보장

○ 향후 계획

- 2012년, 2013년간 SO 전체에 위 기준을 적용(위반 시 시정명령)
- 2014년 이후는 시장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을 재정비